

2021. 9. 29.(수) 10:00
제2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논산시의회 의원 서 원

서 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번 김진호 의원님의 동료 의원과 조사위원회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한 입장을 조사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는 오로지 본인의 뇌피셜에 의한 의혹 제기 및 본질을 비켜가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 덮어 씌우기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김진호 의원께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에게 민원서류를 배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9명의 의원들께서 확

인하신 민원서류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본인들께서 외면하고서 “난 못봤다. 배부하지 않아서 잘 못 된거다.”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의회와 시민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국적으로 LH의 투기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던 시기에 하필 논산시의 회가 절차를 무시하며 서둘러야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절차를 무시하였습니까?

그리고 시민이 해결을 원하는 민원을 본인의 이해관계와 시기를 정해서 일하는게 옳은 의정입니까? 이거야말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행태에 국민이, 시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증오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불참하신 의원님들.

불참하신게 자랑은 아닙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이 다르면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적어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라면, 의회에 참석하시어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책임있는 선출직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인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민원인은 현재도 1년 3개월 전 해당 사안을 전달하며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일관된 주장

을 하고 있으며 김진호 의원께서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시민이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왜 검찰이나 경찰로 가지 않고 의회에 제출했는지 이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되물겠습니다.

여기 제신 여러분 출마하셔서 시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국엔 시민 여러분을 대변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논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시며 한 표를 호소 하셨을 겁니다.

시민이 억울해서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게 과연 맞는겁니까?

아니면 작정하고 본질을 피해가기 위한 프레임 을 짜서 뒤집어 씌우실 요량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겁니까?

김진호 의원님의 주장대로라면 대체 논산시의회 와 논산시의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또한 언론에서 다룬 보도 내용까지 언급하시며 조사위원회를 원망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언론에 직접 따지시기 바랍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을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황명선 논산시장의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시기에 조사가 시작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하셨는데 그 또한 그 시기에 시민이 민원을 제기

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된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황명선 논산시장의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로 인해 조사 시기를 저울질 했다면 전 국민을 공분에 휩싸이게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겁니까?

논산시장의 최고위원 선거시기를 피해서 조사를 했어야 옳다는 말씀이 하고 싶으신겁니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본인의 뇌피셜에 입각한 의혹 제기는 오히려 시민이 정치와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만 만들어 질 뿐입니다.

그리고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한 언론인이 “김진호의원 아십니까?” 질문 한 것에 대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 답변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들에게 동료 의원을 철저히 농락시키고 망신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조사에 임한 동료 의원들을 자괴감에 빠트릴 발언이십니다.

또한 모든 동료 의원들에게 민원서류를 받아보았을 때 단 한분의 의원님이라도 저에게 이런 민원 받아봤냐고 물어봤냐고 원망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선 해당 민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민원서를 확인 했다는걸 본인께서도 인지한 상태 아닙니까?

더구나 본인이 거론된다면 왜 직접 한번도 묻지도 확인조차 않으셨습니까?

왜 동료 의원들만 연락해주길 기다리고 원망을 하면서 본인께서선 직접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다른 동료 의원들은 알았을까요?

이미 소문은 파다했고 9명의 의원님들께선 직접 확인하러 오셔서 해당 민원서를 열람하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마시고 스스로를 되돌아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에게 내부감사, 행안부 감사 및 수사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처럼 말씀하신걸로 미루어 보아 해당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용도 알고 계신 듯 합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 조사위원회에서 통보 받은건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로로 무혐의 통보 사실을 알게 되신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사실과 다른 정치적 산물로 의혹을 부풀렸다고 하였는데 왜 자꾸 본질을 흐리며 이상한 프레임을 덧씌우시는지 그 의도가 더 의문입니다.

기간제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오히려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중인 수많은 논산시의 공직자들이 입었을 상실감을 위로해주고 관리 책임에 소홀했던 분들께서 책임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게 의회의 책무 아닙니까?

제발 기간제 직원의 일탈행위를 전체 공직자에게 덮어 씌우는 듯한 이상한 프레임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 선정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자신의 지인에게 부지를

소개하여 매입하게 한 뒤 논산시가 매입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제 직원은 다른 사건으로 현재 재판 중 법정 구속되어있는 상태이며, 해당 업무와 당사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징계절정까지 내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경인데 단순히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나왔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 관리의 책임에서 논산시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뭘 주장하시려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논산시의회와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논산시

에 대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시민들께서 나 대신 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내 뜻을 대신해서 전달해 줄 일꾼으로 뽑은거
란 말입니다.

이제 8대 의회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
니다.

남은 임기도 의회와 의원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
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로 남길 희망하
며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